월요광장

‘아트 광주 22’ 준비 제대로 되고 있나

정유진
코리아컨설트 대표

자동차 수리를 기다리며 한 잡지책을 무심코 넘기다 특집으로 다룬 예술품 소장에 관한 기사에 눈길이 갔다. 그야말로 미술품을 사고 파는 일이 일상이 되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 경향을 소개하는 잡지에서 아트 콜렉팅에 관해 친근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다양한 정보와 관련 기사들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더불어 뜨거운 NFT(대체불가능토큰) 콜렉팅 등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트 마켓에 대해서까지 전문성을 갖춘 설명과 날선 비판을 함께 보는 것도 흥미로웠다.

이미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아트 마켓에 대한 고조된 관심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한계에 다다른 부동산 시장, ‘동학 개미’ ‘서학 개미’로 불리며 국민 상당수가 열광했던 주식 투자에 이은 가상 자산에 이르기까지 재산 증식을 위한 또 다른 투자 대상으로 예술품이 조명받고 있다. 미술품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특별한 예술 애호자뿐만이 아닌, MZ세대의 참여로 좀 더 확대되고 대중화되어 가는 추세다.

미술품 투자가 인기를 모으면서 아트 마켓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전례 없는 큰 성공을 거둔 ‘제 10회 아트 부산’(BAMA)은 국내 아트 마켓 사상 최대인 3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8만여 명의 방문객을 동원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같은 해 ‘서울국제아트페어’(KIAF)도 650억 원이라는 매출 신기록을 세웠으며,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뷰잉 룸을 갖추고 영국 아트 페어 프리즈(Frieze)와 함께 9월에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진일보한 국내 다른 지역 아트 마켓의 부흥 소식은 실로 호기롭고 부럽기까지 하다.

이런 시점에서 광주는 어떤 아트 페어를 구상하고 있을까? 얼마전 5월에 있을 아트 부산에 함께 가자는 서울 지인의 연락을 받고 올해 아트 광주 일정이 궁금해 사이트를 방문했다. ‘웹사이트 일시 중지!’라는 문구가 광주를 대표하는 아트 페어 사이트의 얼굴이었다. 지난 일정조차도 알 수 없는 사이트를 보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물론 ‘아트 광주 22’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비 중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안내 문구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10년이 넘은 광주 아트 페어가 5월을 앞두고도 웹사이트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로서는 뭔가 맞지 않는다.

지난 2021년 12회를 맞았던 아트 광주는 26억 원 상당의 작품이 판매되고 2만 8500여 명이 방문하여 지역 미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까지 개최된 페어 관람객과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적어도 몇몇 갤러리 관계자들은 크게 만족하지 못한 모양이다. 광주에서 개최되었던 지난 아트 페어들에 참여한 바 있는 국내외 갤러리스트는 다음에도 또 참여할 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늘 문제시되어 왔던 운영상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지역 미술을 아우르는 행사를 함께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웹사이트 운영에서조차 지속성을 보기 어려운 운영 방식의 문제점은 결국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과 준비가 안된 주최 측의 부실한 운영 결과를 매번 반복해 보여 주는 듯하다.

이제까지 광주 아트 페어가 해 온 시행착오를 통해 개선과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현재의 시장 경향과 전망에 따른 현실적인 개선책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넘어서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광주시민들도 인지하는 바다.

분명 광주도 우리가 가진 자산을 백분 활용하여 새롭고 진취적인 아트 마켓으로서 멋진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고유한 정체성이 담겨있는 아트 페어라면 세계 어디서든지 접속을 원할 것이다. 광주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있고, 국제 현대 미술 축제인 비엔날레가 개최되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한다. 그에 걸맞게 지역 미술인의 창작 활동이 확장되고 미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트 광주가 어서 비상할 수 있길 바란다.

수필의 향기

진정한 소유

박용수
수필가·광주동신고 교사

맑은 하늘, 적당한 실바람. 가로수에도 공원과 캠퍼스에도 봄이 찾아 앉았다. 보기 좋고, 걷기도 좋고 사색하기는 더욱 좋은 때다.

창가에 앉아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는다. 햇볕과 바람 속에 봄이 담겨 있다. 독서는 글자가 아닌 생각을 읽고 사유를 찾는 일이다. 작가의 삶과 내 삶을 견줘 본다. 봄바람이 녹음으로 파랗게 번지듯 작가와 마음이 나를 파릇파릇 물들인다. 내일은 섬진강이나 고흥 바다를 들러 볼 참이다.

요즘은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다. 재벌이 성과금으로 수천억을 받았다느니, 누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받았다고 우리의 가벼운 월급봉투를 놀린다. 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수십억대 수입과 연봉을 보면, 부럽다 못해 질투가 나고 나는 더없이 작아지고 또 작아진다.

친구가 농장을 새로 샀다고 오란다.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되는 산기슭이라는데, 적당하게 채소도 가꾸고 닭과 토끼도 키우겠단다. 주말이면 삼겹살도 굽고, 노래도 부르자며 덧붙여 몇 년 후에는 두세 배 오른다며 흥이 났다.

그럴 때면 가볍게 배낭을 메고 들판으로 나선다. 빈들을 보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탐을 낸다고 얻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는 부끄러운 탐욕이 내 안에 기웃거리는 것을 성찰한다. 작은 소출에도 감사하면서 봄맞이 준비를 서두르는 농부들을 보면서 나를 다독이고 응원한다.

창고에 여러 가지 미술품을 소장한들 어찌 내 것이고, 책장에 장서가 많다고 한들 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가꾸지 않고 밟지 않는 땅과 살지 않는 수십 채의 건물과 집을 가졌다고 한들 어찌 자기 것이란 말인가.

어느 스님이 역설한 무소유는 진정한 소유가 아닐지 모른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보다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느끼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필요에 따라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소유가 아닐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느 그릇에나 자유롭게 담기는 물처럼, 내 것과 네 것이라는 테두리에 갇히지 않는,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한 평 땅도 만 평으로 느끼고 공유할 줄 아는 인식을 가진 이가 부자이고 진정한 소유자는 아닐까.

자신의 땅을 내놓으라는 점령군들의 협박에 답한 인디언 추장 시애틀의 말이 떠오른다. 어떻게 바람과 구름과 공기를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조상들의 혼과 숨결이 담긴 산과 들판을, 형제이자 자매인 나무와 강물을 어찌 사고판다는 말인가.

밟고 가꿔야 토지이고, 읽고 소화해야 책인 것처럼, 소유권을 가졌다고, 내 서재에 꽂혀 있다고 모두 내 것은 아니다. 그러니 땅이나 집을 빌렸든 잠시 머물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의 것이고, 책은 읽고 공감하고 감상하는 이의 것,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다. 그러니 응당 도서관이나 공원도 찾아 즐기는 이의 것이고 앞산과 뒷산도 즐겁게 감상하고 산책하는 이의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무등산도 품에 안을 때 내 것이고, 남쪽 바다를 보며 가슴을 활짝 펴고 내 것으로 여길 때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봄바람이 싱싱하고 산뜻하다. 꽃들이 여기저기 만발하고 있다. 이것들은 소유하기보다 소요하고, 투기로 노리기보다 마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진짜 주인일 것이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고들 하지 않던가. 온 하늘과 바다, 들판이 내 것이거늘 무엇을 부러워할 일인가. 산도 들판도 그리고 푸른 하늘, 맑은 바람도 내 안에 감상하고 간직하는 것, 그렇게 심중에 간직하는 것,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게 진정한 소유가 아닐까.

기 고

4·19 정신은 중정(中正) 사상이다

범기철
호남의병연구원장

역사는 산천 따라 흐르고 혁명은 정신을 계승한다. 세계 혁명 사상 유일하게 학생 중심의 정의 구현, 부정선거 규탄, 독재 타도를 이루어 낸 4·19혁명은 가슴 설레는 청년의 힘이요, 대한의 동력이다. 학도들의 이상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았고, 죽음의 선택은 생사를 넘어선 정의로운 포효였다. 그들이 지닌 이상은 무한한 가치였다. 어떻게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면, 가능한 항쟁이었겠는가.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은 영구 집권 야욕으로 3·15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광주·마산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규탄, 3·15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권의 승리가 4·19혁명이다. 광주시민과 학생들의 용기의 원천은 바로 역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호남 의병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에서 1000여 년 동안이나 호남은 권력에서 소외되고 수탈의 대상이 되어온 지역이다. 호남인들은 자연스럽게 지배 권력과 침탈 외세에 대해 향토 방위를 위한 저항에 나섰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현대 정치사에서 광주는 저항의 상징으로 민주화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그 중심에 광주를 의향으로 표상하는 하나의 DNA로 자리 잡았고, 그 토대 위에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다.

광주 3·15의거가 들불이 되어 일어난 4·19혁명은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최상위의 개념이다. 백암 박은식(朴殷植, 1859~1925) 선생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국혼이 살아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4·19 정신은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응집 승화된 통일 의병 정신이다. 한 명 한 명의 뭉친 힘이 거대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감행한 항거였다. 이에 우리 호남인들은 유서 깊은 의향에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 전체가 본받아야 할 ‘호남 정신’을 세계의 평화 정신으로 선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 광주 3·15의거와 4·19혁명은 왜곡과 무관심으로 방기되었다. 5·16 군사정변 이후 4·19는 5·16의 예비적 사건으로 폄하된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민주 운동사에 김주열과 함께 4·19의 한 상징으로 광주 3·15가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전문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12월 21일 법률 제5029호로 제정·시행되었다. 그런데도 4·19혁명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영용)는 4·19혁명의 첫 횃불인 광주 3·15의거를 통일 동력으로 삼아 세계 평화 구현에 앞장서 나아가고 있다.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항쟁을 통해서 선열들은 살신성인(殺身成仁)과 사생취의(捨生取義) 정신을 실천했다. 스스로 절실했던 민주주의의 마음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마침내 그 물결은 파도를 만들어 부정과 부패를 덮어 버렸다.

고 이홍범 박사, 허신행 장관, 안경전 이사장, 이종범 원장 등은 “광주는 정신 혁명의 불길이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타오르는 원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인류 문명의 시원지가 호남이다” “전통 문명, 전통문화를 중시하지 않는 민족의 변화나 발전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역사(정신) 혁명의 불길이 호남에서 타오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4·19 정신은 중정(中正) 사상의 결정체라고 믿는다. ‘중’(中)이란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지 않으며 ‘정’(正)은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정의 사상이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4·19혁명 정신이 주역이 되어야 한다. 4·19 기본법 제정과 통일 운동에 광주시민과 학생,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광주 3·15의거와 4·19 통일 운동 62주년을 맞으며 비명에 가신 선열과 민주 열사들을 추모하고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면서 옷깃을 여민다.

社 說

오늘부터 거리두기 해제…일상 회복 힘 모으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스크 착용만 남기고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22일 유흥·종교시설 등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를 시작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다음 달 하순부터는 확진자의 자가 격리 의무도 폐지된다. 일상 회복을 위한 대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엊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계획의 골자는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열 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오늘부터 전면 해제하는 것이다.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 및 집회는 물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풀린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2주 뒤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의료 체계의 일상화도 함께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수두·결핵·콜레라 등과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재택 치료도 없어진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기간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의원 등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무제한 영업, 무제한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9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다 확진자 수 급증에 거리 두기를 강화한 것처럼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감염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 등 고위험군이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예방 접종, 환기 및 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

수익성 불투명한 ‘생태 호텔’ 조성 신중해야

광주시가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옛 신양파크호텔에 ‘생태 호텔’을 조성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생태 호텔 건립은 폐업한 신양파크호텔을 매입한 개발 회사가 지난 2020년 그 자리에 호화 주택단지를 건설하려하자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이에 광주시는 민·관·정협의회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시민 정원을 갖춘 생태 시민 호텔’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광주시는 생태 호텔을 조성하려면 신양파크호텔 부지·건축 매입비 369억 원과 예술인 숙박 등을 지원하는 아시아 아트 플라자 조성비 300억 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 리모델링이나 신축 비용, 국제 공모를 통한 시민 정원 조성까지 감안하면 예산은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호텔 대부분이 경영 실패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 지난 2009년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해남 땅끝호텔을 매입, 60억 원을 투입할 경우 4억 2000만 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리모델링 비용은 80억여 원이나 들어갔고 수년 동안 10억 원 안팎의 적자에 시달렸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2015년 ‘호텔 운영이 민간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자 매각에 나섰지만 7년 만인 지난달에야 땅끝호텔과 영암 영산재·여수 오동재를 민간에 팔 수 있었다. 전남도는 이들 호텔 운영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만 봤다.

광주시도 생태 호텔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불투명한 수익성이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보다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하니 사업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

無等鼓

‘방랑할 권리’

‘휘게’ ‘피카’ ‘허젤러헤이트’. 이 말들은 각각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어휘로 편안함, 휴식 그리고 아늑함을 뜻한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여유를 찾고자 한다. 호주 출신 작가 케이트 모건은 ‘20가지 행복 철학’이라는 책에서 세계를 누비며 배운 행복의 비법을 전한다. 모건이 예로 든 이탈리아의 ‘돌체 파 니엔테’(Dolce Far Niente)는 우리나라의 ‘멍때리기’와 유사하다.

라틴어에 뿌리를 둔 ‘돌체 파 니엔테’는 세 어휘가 결합된 말이다. ‘Dulcis’(돌치스)는 ‘달콤한’, ‘Facere’(파체레)는 ‘하다’ 그리고 ‘Nec Entem’(넥 엔템)은 ‘존재가 아닌’으로 번역된다. 즉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무위를 즐긴다는 의미다. 소렌토 해변을 비롯해 풍광이 뛰어난 곳이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멍을 때리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의 말 ‘푸리루프트슬리브’(friluftsliv)는 자유로운 야외 생활과 관련돼 있다. 1957년 개정된 야외 레크리에이션 법에는 ‘방랑할 권리’라는 이색적인 조항이 있다. 환경 보호를 전제로 누구나 자연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자연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로 지친 이들에게 회복 탄력성과 창의력을 선사한다.

바야흐로 하수상한 시절이다. 코로나에 물가 폭등, 권력 교체기와 맞물린 여야의 대결로 피로도가 높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형국이다. T.S. 엘리엇이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한 것은 언땅을 뚫고 올라오는 여린 싹에 대한 애처로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한 잔인함은 수사적인 기교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다툼에서 기인하는 잔인함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이된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유엔의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59위였다. 국내총생산(GDP)이나 기대수명 수치는 높지만 행복 지수는 턱없이 낮다. 올해 4월도 ‘잔인한 달’로 기록될 것 같은 예감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닐 터다.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방랑할 권리’를 누리는 것은 어떨까 싶다.

/박성천 문화부 부국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